

내 마음속에 주인공이 있으니 거기서 하게 하세요!

21면에서 계속

안되게 했으니까 안되는 거지.'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자비 되는 것도 자비입니다.

예전에 저 원주에서 있었던 얘깁니다. 어느 신도가 열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3대가 살았는데 그 3대 중에 뼈가 없어서 몸을 못 쓰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다 되도록 누워서 고개도 못 쳐드는 거예요. 그런데 밥은 잘 먹거든요. 고개만 이렇게 받쳐서 들어 주면 한 그릇씩 먹고선 풍은 그냥 받아 내는 거지요. 그러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열 식구가 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죽어도 내내 잊지 못하는 건 그 부모일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이 때문에 수발을 다 들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가 그렇게 해 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날더러 이런 말을 했

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바꿔서 몸을 성하게 해 줬으니 죽이는 것도 자비요 살리는 것도 자비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얼마나 자비입니까, 그게? 열 사람 살렸지요. 개 몸 바꿔 줬으니 살렸지요. 또 그 아들이 불쌍해서 애썼으니 그거를 다 풀라고 또 그 집의 손자로 태어나게 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이렇게 일거삼득으로 좋은 일만 생기니 여러분도 그 보배 하나 가지면 일체 만법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식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그거와 똑같다고요. 일체 만법을 다 적용시킬 수 있어서 딱치는 대로 놓으면 놓는 대로 작용된다고요. 아파서 놓으면, 말기면 즉, 일일하면 금방 의사가 됐다가 또 가난을 면하고자 놓으면 금방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금방 이렇게 자꾸자꾸 자동적으로 화해서 나투니까요.

"그게 아니다. 바로 네가 한 것이다. 나의 은덕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은덕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일체 만법을 그 보배 하나로 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수없이 바뀌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보배 구슬이 여러분한테 있으니 말입니다.

용(龍)도 여의주가 있어야 하늘에 오르다고 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바로 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주를 물지 않으면' 하는 거는 '오신통을 자기가 굴릴 줄 모른다'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걸 여의주라고 했고 구슬이라고 했고 보배라고 한 것입니다. 그걸 굴리지 못하면 하늘에 못 올라간다 이 소립니다. 말이 하고 싶어도, 또 어떤 때는 하려고 하다가도 딱 데로 달아나가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글썽. 참...

끝으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 수많은 조사들께서 주장자를 들고 한 번 팡! 치고선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일러 봐라." 하신 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가 있지만 말입니다. "이 주장자의 눈을 봤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판치생모(板齒生毛)니라." 하는 그 천찰백 공안들을 하나하나 내린 건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얘기 가지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없이 대답을, 특별한 대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실제 비구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근데 비구니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실제 비구니에 대하여 도승으로서의 일화를 남겨 놓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샷갓을 쓰고 석장을 짚고선 금화산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다녔느냐 하면 공부를 웬만큼 했으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절로 다니면서 스님네들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금화산의 주지 스님이 바로 구지 스님인데 깨치지 못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이 스님이 들어오더니 아무 소리도, 인사도 없이 빙글 빙글 세 번을 돌았습니다. 세 번을 돌고선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 주지가 뭐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 주지 스님 입장이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중에서 한번 일러 보십시오. 그거는 그림 의정으로, 교재로 놔두고요.

그 스님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분해 가지고는 그날 보따리를 부둥부둥 썼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귀가 아프시도록 많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거건 두 가지 여건이 있죠? 실제 스님이 든 거하고, 구지 스님이 동자의 손가락을 자른 거하고, 거기에 아주 묘한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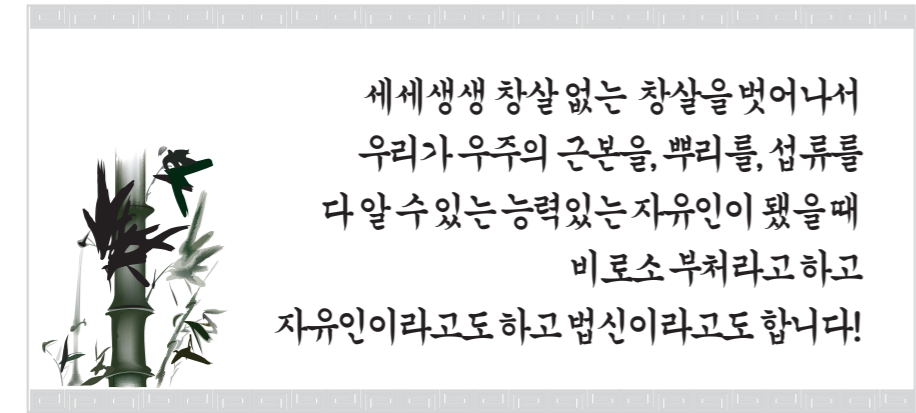
'대장부로서 입산을 해서 주지로서 있으면서 그 래, 비구니한테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다니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선 그날 밤새도록 보따리를 썼다 풀었다 썼다 풀었다 하면서 '내가 인제 내일 새벽이면 떠나겠다. 나도 공부해야지.' 하고 있다가 밤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수염이 하얗게 센 산신이 나타나더니만 "앞으로 너를 인도해 줄 천룡 스님이 오실 테니까 너는 가만히 기다려라.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 공부할 힘이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똑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스님이 오시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스님, 이리이리하고 이리이리해서, 세상에 남자로 나서 비구니한테 이렇게 그냥 당했습니다." 하고 절절 우니까 아무 소리 없이 손가락 하나를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슨 까닭입니까? 거기에서, 그 주지 스님은 고만 손가락을 드는 바람에 '아하!' 하고는 그 손가락에 삼

소소한 내막은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말끝을, 말꼬리를 잡고 여러분의 말을 배워서 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그러니 그 꼬리 잡고 늘어질까 봐 걱정이지요. 옛날에 그 수많은 선사들도 꼬리 잡을까 봐 천철백 공안을 다 던져도 꼬리 잡지 못하게 했죠. 하나 둘, 요 파위나 가지고선 한번 대답했다간 그냥 큰코다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울려놔다 내려놔다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나한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까. 다마는 어디에서 그 방법을 다, 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아픈 거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라든지 뭐, 무슨 건이든지 다 어디서 해결을 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인공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공



습니다. '스님, 좋은 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하니,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마 서른 안팎이었으니까요. '무슨 좋은 일인데요?' 하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저 살아 있을 때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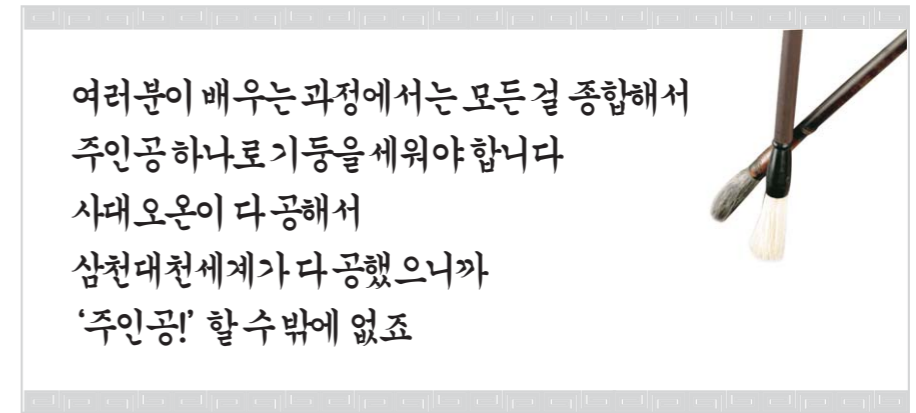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그런 거 처리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백화점을 했습니다. 돈도 참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장 질 지을 때니까, 주인공뻘에는 처리를 못한다고 믿고 맡기고 자극히 정성을 들이면서 당시 형편대로 시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했던지 그 애가 그만 가 버렸습니다. 가 버린 게 아니라 바뀌진 거죠.

그런데 그 애가 어디로 태어났느냐 하면 형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거 믿지 않으실 테죠? 그런데 그 아이는 요기 젊이 요렇게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태어난 그 애가 똑같이 그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해 줘서 알게 하는 건 안 됐지만,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생활 속에서 좀 더 자기를 유익하게 건지면서 나가다 보면 신심도 아주 돈독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애쓰게 되면서 능력이 생겨서 남까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선원에 청년법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청년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회장이 언젠가 와서 자기 사촌 동생이 폐병을 앓아서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뺏 썼습니다. "네 보배는 어디다 두고 구구려 해 달라느냐?" 그리고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알았다고 그랬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알았다고 했을까 이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한 두어 서너 달 지났는데 그때 와서 "진작 말씀을 드려야 할 거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의 감응을 받았고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스님, 뜻으로서 고치는 방법을 제가 알았으니 머리를 잘라서 신을 삼아 드린들 이 은덕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했습니다.



천대천세계 우주가 들리는 거를 본 겁니다. '바로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단 말입니다. 그 스님은 그 다음부터는 항상 '부처님이 계십니까?' 하면 손가락을 들고 '공양 드셨습니까?' 해도 손가락! '부처님이 어딥니까?' 해도 손가락!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도 손가락! 손가락으로 평생을, 어떤 질문을 해도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동자가 고개를 흔들 났단 말입니다. 손들이 와서 물으니까 자기 은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손가락을 쳐들었지요. 또 그것도 잘했다고 스님이 오시니까 다 얘기를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 아무개야!" 불러서 쳐드는 손가락을 탁 잘랐단 말입니다. 막 그걸 붙들고 울면서 달아나가는데 말입니다. 묘한 건 요기에 있어요. 달아나가는데 "아무개야!" 부르는 소리에 돌아다보면서 무의식중에 손가락을 또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가락을 들려고 보니까 손가락이 잘리고 없었어.

이런 내 얘깁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없는 걸 보고선 동자도 '이거구나!' 하고 알았더라입니다. 그

에서 해결하게 하되 그저 내 성의껏,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성의껏 시주하면서 정성을 들이시고 자주 드나드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봅니다. 난 장담합니다.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오디에 또 한 번 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을 키우셔서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한 번 또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여기 부처님과 틀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한 틀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에는 항상 보일 겁니다.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신다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자유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 위 법문은 1988년 8월 22일 제주시법회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의 호흡법 아나빠나삿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핵심 수행법, 아나빠나삿띠

붓다사스님 지음 • 김열관·이승훈 옮김 | 신국판 576면 • 값 25,000원

"깨달음을 얻고 싶으세요? 먼저 부처님처럼 호흡하세요" — 조선일보

"붓다의 숨결 따라가는 깨달음의 길" — 문화일보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핵심 수행 호흡법 — 세계일보

"들숨 날숨 조화 속에 부처 되는 비법 담겨" — 주간불교신문

"위빠싸나 수행의 핵심, 아나빠나삿띠 수행에 관한 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세하고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지침서" —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경제, 뉴스1, 불교신문

불광출판사 추천도서 / 선 & 위빠싸나

- 육조단경 | 권역역주 | 신국판 양장본 396면 | 값 16,000원
- 서경 | 대제 종교 지음 · 지상 주해 | 신국판 양장본 552면 | 값 18,000원
- 임제록 강설 | 무비 지음 | 신국판 양장본 372면 | 값 15,000원
- 대승지관법문 | 남익에서 스님 지음, 원경 스님 옮김 | 신국판 양장본 382면 | 값 15,000원
- 방가서 아록 강설 | 해탈자상 스님 강설 | 신국판 양장본 328면 | 값 15,000원
- 위빠싸나 1.2 | 김열관 편저 | 신국판 352면, 544면 | 각각 값 12,000원, 15,000원
- 위빠싸나 열두 선사 | 김열관 옮김 | 신국판 340면 | 값 9,000원
- 그냥 버려라 불 본이다 | William Hart 지음, 서경 번역 | 신국판 224면 | 값 6,000원
- 위빠싸나 성자 아만 문 | 아만 마하 부와 역음, 김열관 옮김 | 신국판 398면 | 값 8,500원
- 위빠싸나 수행 | 김재성 옮김 | 4.6면 176면 | 값 5,000원

**월간 불광을 만나면
삶이 밝아집니다**

행복은 손에 잡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33년 동안 한결같은 도반 월간 「불광」을 품에 안으십시오.
마음 지킴이 월간 「불광」이
생활 속의 지혜를 밝혀 행복을 설계해 드립니다.

http://www.bulkwang.org

1년 구독료 : 38,000원 | 2년 구독료 : 70,000원 | 3년 구독료 : 100,000원

구독문의 02)420-3200 팩스 02)420-3400
e-mail : webmaster@bulkwang.org

서울시 송파구 송촌동 165-14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homepage: http://www.bulkwang.org.kr